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y Vol.7, No.2, December (2018), pp. 207-226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http://dx.doi.org/10.29056/jncist.2018.12.08*

『혼불』에 재현된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의 제안 - 평생의례를 중심으로 -

A Proposal for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Using Korean Traditional Folkloric and Cultural Elements Represented in *Honbul* - Focusing on the Life Cycle Ceremony -

김형민[1], 이재호[2*]

Hyeong Min Kim[1], Zae-Ho Lie[2*]

요 약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은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의 수려함, 민속지적 차원에서 민속과 풍속에 대한 섬세하고도 다층적인 기술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작가는 『혼불』에서 잊혀진 그리고 잊혀지고 있는 한국 전통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섬세한 언어로 복원하여 재현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혼과 전통을 일깨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가 최명희가 『혼불』로 박물지적 소설이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혼불』에서 재현된 한국 전통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민속·문화 요소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개발된 문화콘텐츠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산업의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련의 사전 작업들이 요구된다. 그런 사전 작업들 중 하나로서 본 연구는 기획되었다. 본 논문은 민속지적 소설 해체 읽기를 통해 평생의례와 관련하여『혼불』에서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핵심어 : 드림 소사이어티, 문화콘텐츠, 원소스 멀티유스, 평생의례, 혼불

Abstract

The epic novel *Honbul*, written by Myung-Hee Choi, is characterized by her ability to observe, elaborative and creative words, delicate and multi-layered descri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lklore and custom in the ethnographic aspect. In *Honbul* the author restored and reproduced forgotten and forgetting Korean traditional tangible and intangible folkloric and cultural elements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1 Department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kimhyeongmin@ssu.ac.kr
2 Department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zhlie@ssu.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ugust 21, 2018), Review Result(1st: September 15, 2018, 2nd: September 28, 2018), Accepted(December 04,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ISSN: 2384-101X JNCIST
ⓒ 2018 NCISS

research. It was through this that she awakened readers to the spirit and tradition of our people. In this sense we estimate that with *Honbul* the author Myung-Hee Choi opened the new horizon for ethnographic novel. Ultimately we aim to extract Korean traditional folkloric and cultural elements represented in the epic novel *Honbul* and to change extracted elements into cultural contents by designing new creative cultural contents and to develop designed cultural contents into items of cultural industry which are suitable for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is purpose a series of prerequisites are required. As one of prerequisites this study is planned. This paper focuses on the extraction of Korean traditional tangible and intangible folkloric and cultural elements concerning the Life Cycle Ceremony represented in *Honbul*.

Keyword : Dream society, Cultural contents, One-source multi-use, Life cycle ceremony, *Honbul*

1. 서론

인류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경험했으며,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1980년에 출판된 자신의 대표작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인류가 수렵·채취의 생활에서 농경 기술의 발견까지 1만 년의 제1의 물결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의 물결을 경험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지식·정보화 사회란 제3의 물결을 맞이했다[1]. 그의 예측대로라면 인류는 지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지식·정보화 사회가 무르익으면서 제4의 물결을 경험할 것이다. 과연 제4의 물결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19세기는 민족문제가, 20세기는 이데올로기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면, 21세기는 '문화'란 키워드가 화두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훗날 '문화의 세기(century of culture)'로, 국가경제의 승부처가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y)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문화 산업은 경제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되기도 한다(김형민 2017, 247 참고)[2]. 이렇듯 21세기는 문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대로 기록될 것임에 틀림없다.

20세기 중반 이래 시·공간의 압축현상을 몰고 온 교통수단 및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 그리고 인류의 문명에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가져온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이 20세기 후반부터의 우리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불리게 만들었다(진상범·김형민 2014, 13 참고)[3]. 특히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가져온 지식·정보화 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보편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김형민·이재호 2017, 14 참고)[4]. 게다가 디지털 방식의 정보처리 과정은 우리에게 "입체적, 통합적, 쌍방향적 의사소통"(진상범·김형민 2014, 13)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인식 과정과 인식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3].

그러나 우리는 현재 다른 시대의 도래에 직면하고 있다. 아니 다른 시대적 흐름이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 1942~)은 1999년에 출판된 자신의 대표작

ⓒ 2018 NCISS

『The Dream Society』에서 우리 사회가 꿈, 창의성, 이미지, 이야기 등의 감성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지식·정보화 사회 이후 도래할 미래 사회는 꿈과 이야기와 감성의 사회인 '드림 소사이어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5].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감성적 이미지에 호소하는 문화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21세기를 선도할 성장 동력이 '문화'이며, '스토리텔링'이 드림 소사이어티의 문화 상품 시장에서 강력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문화 상품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할까? 스토리텔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이야기의 탄탄한 서사구조이다. 이는 수용자가 이야기에 몰입하게 해준다. 둘째,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전달 매체의 선택 및 활용이다. 이를 통해 이야기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과 몰입과 이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원천 이야기의 다양한 가공 혹은 재창조이다. 이는 '원소스 멀티유스(OSMU. One-Source, Multi-Use)'라는 용어로 대변될 수 있다. 마치 동일 재료들로 배합을 달리하여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듯이, 원천 이야기를 수용 대상, 전달 목표, 전달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 형태로 가공 혹은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창현 2013, 18이하 참고)[6].

'가장 고유한 민족 문화가 가장 세계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명언이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인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적인 유·무형의 민속·문화요소를 발굴하여 세계에 널리 알리는 차원을 넘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이란 기존의 유·무형의 민속·문화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상품화 산업이다(장미영 2011, 418 참고)[7]. 물론 한 국가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다.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못지않게 문화정체성의 확립, 전통문화의 복원과 보존, 보편적인 세계문화의 창달에 기여 등도 한 국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원천 콘텐츠(original contents)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혼불』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문화요소들이 다양하고도 풍부하게 담겨 있지만, 그것들이 서사적 사건에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마치 박물지(博物誌)의 형식처럼 나열되어 있어 서사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세월에 묻혀 희미해지거나 거의 잊힌 민속·문화 요소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재현한 『혼불』은 '한국적'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훌륭한 원천 자료(source material)가 될 수 있다(고은미 2011, 447; 박순봉·송광인 2011, 100 참고)[8][9].

ⓒ 2018 NCISS

본 연구자들은 궁극적으로 『혼불』에서 재현된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 주요 언어들로 번역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전통 문화의 일부분을 타언어권·타문화권 구성원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혼불』에서 재현된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추출하고, 추출된 민속·문화 요소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기획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개발된 문화콘텐츠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문화산업의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전 작업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그런 사전 작업들 중의 하나로 평생의례(平生儀禮)와 관련하여 『혼불』에서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2. 『혼불』에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절차

최명희의 대하소설 『혼불』은 가족사(家族史) 소설이자 민속지(民俗誌)적 소설이다. 『혼불』은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1930~40년대 전라남도 남원의 매안 마을과 거멍굴을 배경으로 뿌리 깊은 양반 가문인 매안 이씨 종가의 흥망성쇠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족사 소설로 평가받는다. 다른 한편 『혼불』은 "관혼상제의 의식, 절차, 법도, 전통적인 세시풍속과 의식주 생활, 관제, 직제, 신분제, 풍수, 무속신앙, 전통가구, 의상, 침선, 촌락구조와 습속, 풍물, 놀이, 소리(노래), 신화, 전설 등"(황국명 1999, 160)을 철저하게 재현하고 복원한다는 점에서 "민족지(ethnography)적 소설 또는 민속지적 소설"(김열규 1999, 8)로 평가 받는다[10][11].

『혼불』은 읽기 어려움과 지루함, 매끄럽지 못한 텍스트성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의 유려함, 민속지적 차원에서 민속과 풍속에 대한 풍부하고도 다층적인 기술 등이 두드러진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에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들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섬세한 언어로 복원하고 재현했다. 이렇게 복원되어 재현된 유·무형의 민속·문화요소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시대에 걸맞은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본 연구자들은 『혼불』에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2.1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 추출 - 민속지적 소설 해체 읽기

『혼불』은 민속·문화 정보를 문학적 담론에 담고 있어 소위 '민속지적 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는 작가 최명희가 우리 전통적인 삶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문헌 조사, 전문가의 조언, 직접 취재, 현장체험 등을 통해 원천적인 민속·문화 정보를 찾아내고, 소설의 서사 구조 속에서 찾아낸 민속의 문화요소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 2018 NCISS

민속지적 소설로서의 『혼불』에 담긴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을 추출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가 최명희가 했던 작업을 '거꾸로' 하는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소설에서 민속·문화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민속·문화 요소들이 서사적 맥락에 녹아 있어, 그것들만을 가려내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특정 민속·문화 요소가 소설에서 단일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고 여러 사건에 두루 분포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데 당연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래서 『혼불』에서 재현된 유·무형의 전통 민속·문화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읽기 작업',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민속지적 소설 해체 읽기 작업'이 요구된다.

민속지적 소설 해체 읽기 작업이란 민속지적 소설의 서사적 맥락에 녹아 있는 민속·문화 요소와 한 민족의 실질적인 민속·문화 현상을 연관시킴으로써 해당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때 원천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 등장인물, 줄거리, 물품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가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2.2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의 시놉시스화 작업

민속지적 소설 해체 읽기를 통해 추출한 『혼불』의 민속·문화 요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놉시스(synopsis)의 형태로 정리한다. '시놉시스'는 일반적으로 연극, 오페라 등 공연예술의 내용을 간추린 개요를 가리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시놉시스란 민속·문화 요소들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때 편의성과 활용성을 위해 소설 속의 민속·문화 요소들을 항목별로 재배열, 재배치, 재정리하여, 실질적인 민속·문화 현상에 가깝도록 재조합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놉시스화 작업은 작가 최명희가 소설에게 민속·문화 요소를 2차원의 평평한 지면에 문자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문화콘텐츠화 작업의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놉시스화 된 소설 속의 민속·문화 요소는 항목별로 문화콘텐츠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3 등장인물과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의 포트폴리오 구축

『혼불』의 등장인물을 성별, 사회적 신분별, 직업별, 시대별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축한다. 또한 소설에 재현된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도 항목별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화가, 사진작가 등이 자신의 작품 경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해 작품 샘플을 묶어 놓은 개인별 작품집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포트폴리오란 등장인물의 프로필화 작업과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의 주요 특징을 도상적(圖像的) 형태로 재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등장인물의 프로필화 작업은 외형적 모습, 에피소드의 상황, 시·공간적

ⓒ 2018 NCISS

상황 등에 따른 등장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그림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의 도상적 재현은 소설에서 재현된 민속·문화 현상들을 역사적 고증에 근거하여 문자의 형태가 아니라 도상적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혼불』의 등장인물과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축한 작업은 『혼불』이란 원천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그림책, 만화 영화, 상업 영화, 교육 동영상,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뽀로로, 미녀와 야수, 라이언 킹, 미키 마우스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캐릭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혼불』의 등장인물을 프로필화 하는 포트폴리오 작업은 상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의 기반 작업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원소스 멀티유스의 효과가 기대된다.

2.4 스토리텔링

『혼불』에서 추출한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에 이야기를 붙이는 작업,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작업을 행한다. '스토리텔링'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살펴보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줄거리를 구축해서 이야기해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의 스토리텔링이란 특정한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에 관련되나 소설에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재배열하여 응집성 있는 이야기 텍스트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스토리텔링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혼불』의 스토리텔링 작업은 잊어졌거나 화석처럼 남아 있거나 무미건조하게 전승된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에 새 생명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각의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에 관한 세부 이야기들이 한 스토리 라인 하에서 재배열되어 탄탄한 서사적 구성을 지닌 이야기로 거듭난다. 스토리텔링 작업에 의해 새로 거듭 난 이야기는 탄탄한 구성력을 지니게 되어, 다른 매체의 문화콘텐츠, 예를 들어 디지털 영상 콘텐츠로 전환하기가 용이하다.

3. 통과의례

'통과의례(通過儀禮, rites of passage)'라는 용어는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Ludwigsburg) 태생의 네덜란드계 프랑스 인류학자 아놀드 반 겐넵(Arnold van Gennep 1873~1957)이 1909년 프랑스어로 발표한 저서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에서 처음 사용했다. 반 겐넵에 따르면 "세속적인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중간

ⓒ 2018 NCISS

단계를 거쳐야 한다(Gennep 1960, 1).”[12]. 그래서 인류는 세속적인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를 연결하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속적인 것에 ‘성스러움’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인류는 ‘의례’라는 문화 행위를 고안했다. “모든 의례의 속성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남이다. 특정 사건이 의례에 의해 기념되거나 재현될 때, 그 사건의 시간은 현재화된다.(Eliade 1974, 392)[13]” 인류는 의례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세속적인 사건들을 현재화하고, 그 세속적인 사건들에 성스러움을 부여해 왔다.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개인의 삶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의 상태(또는 상황)에서 다른 상태(또는 상황)로 옮겨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 옮겨가는 과정마다 일련의 의례가 행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통과의례이다. 통과의례는 일반적으로 크게 평생의례(平生儀禮), 세시의례(歲時儀禮) 또는 연중의례(年中儀禮), 영역의례(領域儀禮)로 나뉘는데(장철수 1993, 51 참고)[14], 평생의례는 흔히 ‘좁은 의미의 통과의례’라고도 불린다.

좁은 의미의 통과의례인 평생의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까지 출산, 성년, 결혼, 사망, 제사 등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여러 의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민속 문화 행위이다. 따라서 평생의례는 인간이 일생 동안 거쳐야 인생의 전환점에 행하는 상징적 개인 문화 행위로 한 번 지나가면 되풀이 되지 않는 비가역적(非可逆的) 특성을 지닌다(김만태 2010, 303 참고)[15]. 세시의례 또는 연중의례는 일 년을 주기로 계절의 변화 및 달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속 문화 행위이다. 따라서 연중의례는 시간적 주기와 관련된 상징적 집단 문화 행위로 특히 농경 문화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반 겐넵에 따르면 영역의례는 평생의례와 세시의례를 논하기 위한 공간적 틀을 제공한다(Gennep 1960, 15-25 참고)[12]. 이런 의미에서 영역의례는 생활공간의 영역을 확인하는 민속 문화 행위로 이해되며(장철수 1993, 51 참고)[14], 공간적 경계와 관련된 개인적·집단적 문화 행위이다.

아래 [표 1]는 통과의례의 하위개념인 평생의례, 세시의례, 영역의례의 상징적 의미와 문화 행위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표 1] 통과의례

[Table 1] Rites of Passage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상징적 의미	문화 행위의 종류
통과의례	평생의례	인간 삶의 중요 전환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개인 문화 행위
	세시의례	시간의 주기적 반복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집단 문화 행위
	영역의례	생활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개인·집단 문화 행위

통과의례 중 평생의례는 일상생활의 주체인 인간이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상징

ⓒ 2018 NCISS

적으로 나타내는 인간 중심적 민속 문화 행위로 특정 문화권의 인간관(人間觀)과 생사관(生死觀)을 반영한다. 특히 평생의례는 특정 문화권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평생의례가 세시의례나 영역의례에 비해 민속학, 인류학, 문화학 등의 학문 분과에서 보다 큰 관심을 받는다.

평생의례, 세시의례, 영역의례를 아우르는 통과의례는 한편으로는 각 문화권에서 생활 습관 혹은 생활 관습으로 오랜 세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해당 문화권 구성원의 고유한 삶의 방식, 가치관, 정체성 등을 잘 드러낸다. 그래서 통과의례는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유지헌, 한명숙 1997, 170 참고)[16]. 또 다른 한편 거의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통과의례의 절차가 있다. 이는 특정 문화권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유·무형의 문화 요소가 존재함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본 연구는 『혼불』에서 민속지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평생의례에 집중한다. 특히 『혼불』에서 형상화된 평생의례의 장면은 독자들에게 한국에서 계승되어 온 전통적인 유·무형의 문화 요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혼불』의 서사적 구심점은 평생의례의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형상화되는 서사의 축은 상례와 혼례이다(장일구 2011, 14 이하 참고)[17]. 상례는 서사의 핵심 모티브인 '혼魂불'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혼례는 전체 서사의 출발점이자 서사적 사건들의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원인과 결과이기도 하다. 작가 최명희는 『혼불』에서 혼례와 상례를 포함한 평생의례에 관련된 민속과 풍속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섬세한 언어로 복원하고 재현한다.

본 연구의 『혼불』 텍스트는 도서출판 매안이 발행한 2016년도 제2판 제27쇄 본이다.

4. 『혼불』의 평생의례에 나타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

평생의례는 출산의례(出産儀禮), 관례(冠禮), 혼인의례(婚姻儀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로 하위분류되는데, 이는 개인에게 벌어지는 출산, 성년, 결혼, 사망, 사후 등의 특정한 삶의 전환점에 관련되는 의례이다. 그래서 평생의례는 '생애 주기 의례(life-cycle rites)' 또는 '생애 위기 의례(life-crisis rites)'라고도 불리며, 한 개인이 사회적 삶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한다(Bell 1997, 94 참고)[18].

4.1 출산의례

출산의례(rites of birth)는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관련되는 일련의 의례로 출산 과정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잉태를 위한 준비과정인 수태와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의례이다(이향만 2013, 129 참고)[19]. 출산의례는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일생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례이다. 그런데 출산의례는 의례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 혹은 가족 구성원이 주관한다(주영하 2003, 202

ⓒ 2018 NCISS

참고)[20]. 출산의례는 보통 산전의례, 좁은 의미에서의 출산의례, 산후의례로 나뉜다. 산전의례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로는 자식 낳기를 비는 기자의례(祈子儀禮)가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출산의례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로는 출산 시 주술적 의례가 있다. 산후의례의 가장 대표적인 의례로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금줄 치기, 출산 3일과 첫이레, 두이레, 세이레에 삼신할머니에게 상 올리기, 백일잔치와 돌잔치가 있다.

『혼불』은 출산의례와 관련하여 산후의례에 속하는 돌잔치 의례를 상세히 묘사한다. 돌잔치 의례는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맞이하는 생일로서 아기가 돌상에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아기의 장래를 점쳐보는 우리의 고유한 민속 문화 의례이다.

다음은 『혼불』의 제2권에서 강모의 돌잔치 상황을 기술한 텍스트이다.

청암부인은 첫돌맞이 돌상 앞에 복건을 쓰고 앉은 조그만 손자 강모에게 축수하며, 고사리 같은 아기의 손을 뻗쳐 주었다. 검은 윤이 반드럽게 오른 상 위에는 어린 손자의 앞날을 점쳐 보는 증표들이 정성스럽게 줄을 맞추어 놓여 있었다. 맨 뒷줄에는 먹과 벼루, 책, 그 옆에 청실 홍실이 나란하고, 가운데줄에는 붓이며 돈, 그리고 활과 무명필이 소담하게 혹은 날렵하게 놓였는데, 아기의 손이 닿기 좋은 앞줄에는 과일, 국수, 쌀, 떡 등의 음식이 탐스러웠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앞날들은 하나같이 복스러운 것이었다. 쌀에는,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고, 쌀로 만든 무지개떡과 편이며 송편·경단이 모두 곡식들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 없지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곡류라면 역시 쌀이 아닌가. 쌀은 곧 재물이요, 쌀은 곧 목숨이었다. 그보다 좀더 직접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것은 돈이어서, 쌀을 한 웅큼 집으나 돈을 집으나, 아기가 장차 부자가 되리라는 예언에는 별 차이가 없는 일이었다. 국수 그릇에 손을 대면 무병 장수할 것이요, 대추든지 사과든지 감이든지, 과일을 집어 올리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또한 청실 홍실은 길고도 긴 수명을 여한 없이 누리라고 타래를 틀고 있다. [...] 청암부인은 속으로, 저것이 실타래를 맨 먼저 집었으니 오래 살리라 생각하며 흐뭇하게 여기었다. 이기채는 이기채대로 [...] 쌀대접을 부둥켜 안으려고 시늉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재물은 좀 모으려는가 싶구마는 [...] 율촌댁은 또 달라서, 대추를 입으로 가져 가던 강모의 이쁜 짓만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떠올려 보는 것이었다. 아랫것들은 또 저희들이 들은 대로 혹은 붓을 들었다고 하고, 혹은 떡을 먹었다 하고, 누구는 책을 읽었다고도 하면서, 저 들은 것을 옳다고 고집하였다. 만일에 그 말들이 모두 맞는다면, 강모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 수명 장수하면서 온갖 복록과 부귀 공명을 한몸에 누리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인(福人)이어야 할 것이다. (혼불 2:246-249)

4.2 혼인의례

혼인(婚姻)의 사전적 의미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다. 혼인의례(rites of marriage)는 혼인과 관련된 모든 의식을 아우른다. 혼인 준비, 혼인식, 혼인식이 끝난 후 행하는 전반적인 의식이 모두 혼인의례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통 혼인의례는 크게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 2018 NCISS

친영(親迎) 4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친영은 다시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로 나뉜다.

의혼의 자구적 의미가 '혼인을 의논하기'이듯이, 의혼은 혼인을 진행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납채는 남성 측에서 혼인을 청하고, 여자 측에서 혼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리킨다. 납폐는 혼인이 정해졌음을 보이기 위해 남자 측에서 여자 측으로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의식을 가리킨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을 가리킨다.

『혼불』에서 혼인은 서사의 핵심 모티브로서 서사적 사건들의 연결고리이자 사건의 발생 원인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혼불』의 서사적 출발은 매안 마을 이기채의 장남 강모와 대실[竹谷] 마을 허담의 장녀 효원의 혼례장면이다.

『혼불』의 제1권에서 강모와 효원의 교배례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부서언재애배애(婦先再拜)." [...] 신부가 먼저 두 번 절 하라는 말이 꼬리를 끌며 마당에 울리자, 신부의 양쪽에 서 있던 수모(手母)가 신부를 부축한다. 신부는 팔을 높이 올려 한삼으로 얼굴을 가리운다. [...] 신부는 다홍치마를 동산처럼 부풀리며 재배를 하고 일어선다. [...] 사모(紗帽)를 쓰고, 자색(紫色) 단령(團領)을 입은 신랑은 소년이었다. [...] 그는 시키는 대로 나붓이 꿇어 앉으며 신부에게 일배(一拜)를 한다. [...] "부우재애배애(婦又再拜)." 신부가 다시 두 번 절을 하자 신랑은 답으로 일배를 한다. [...]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허근의 영(令)을 따라 그 자리에 각각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았다. (혼불 1:14-17)*

전통 혼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잔을 바꾸어 나누는 술을 합환주(合歡酒)라고 한다. 이는 남녀 결합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합환주를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마심은 혼례의 실질적 성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정혜경 외 2010, 421 참고)[21]. 『혼불』의 제1권에서는 강모와 효원의 합근례가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 *"시이자아가악치임주우(侍者各斟酒)." 시중 드는 이는 각기 술을 치시오. [...] 신부측에서 흰 사기잔에 술을 부어 신랑편으로 보내면, 신랑은 그를 받들어 땅에 조금 지운 다음 한 모금 마시고 신부측으로 보낸다. 신부는 신랑이 보내온 이 술을 다 마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신랑측이 신부한테 술잔을 보내고, 신부는 아까 신랑이 하던 순서대로 행하는 의례이다. [...] "거배애상호서상부하아(擧盃相互上夫婦下)." 서로 잔을 들어 신랑이 위로, 신부가 아래로 가게 바꾸시오. [...] 세번째 술잔은 표주박인 것이다. 원래 한 통이었던 것을 둘로 나눈, 작고 앙징스러운 표주박의 손잡이에는 명주실 타래가 묶여 길게 드리워져 있다. 신랑쪽에는 푸른 실, 신부 쪽에는 붉은 실이다. [...]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 표주박에 가득 술을 부어 술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술잔을 바꾸면서 술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된다. 또 실이 얽히거나 꼬여서는 더욱 안된다. 술방울을 흘리면 흘린 쪽의 마음이 새어 버리고, 실이 얽히면 앞날에 맺힌 일이 많아, 그만큼 고초가 심하다고 하였다. [...] 하님*

ⓒ 2018 NCISS

과 대반은 각기 신랑과 신부에게 표주박을 쥐어 준다. "시이자아가악치임주유(侍者各斟酒)." [...] 신랑이 잔을 비운다. 대반은 신랑의 손에서 표주박을 받아 상 위에 놓는다. 신부의 차례에 이르자, 사람들은 저절로 흥이 나서 고개를 빼밀고 꼰지발을 딛는다. [...] 신부는 눈을 내리감은 채 수모가 기울여 주는 표주박의 술을 한 방울씩 마신다. [...] "예피일철사앙(禮畢撤床)." 예를 마쳤으니 상을 거두시오 [...] "각조옹기소오(各從基所)." [...] 이제 모두 제 처소를 따라 자리로 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례상 위에 놓여 있는 밤과 대추를 신랑 주머니에 넣어 준다. 저녁에 신방에서 먹으라고 했다. [...] 신랑과 신부가 각기 대반과 하님의 부축을 받으며 초례청을 떠나자 마당은 바야흐로 이제부터 흐드러진 잔치에 들어갈 모양이었다. (혼불 1:17-22)

합근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신랑 강모와 신부 효원이 표주박 술잔을 바꾸어 마실 때 표주박에 붙여져 있는 청실과 홍실이 얽히고 만다. 이를 통해 최명희 작가는 두 사람의 행복하지 못한 앞날을 암시한다.

4.3 상례

상례(rites of funeral)는 상중(喪中)에 행해지는 모든 의례로 지칭하는 용어로 "죽음을 처리하는 전체 의례"(김시덕 2010, 440)이다[22]. 다시 말해서 상례는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죽음이고, 이에 따르는 의례"(박대수 2014, 140)로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례절차이다[23].

『혼불』에서는 청암부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전조하는 징후, 다시 말해 혼불이 청암부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혼불'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혼을 이루는 바탕으로 죽기 얼마 전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맑고 푸르스름한 빛'이다. 인월댁과 효원이 청암부인의 혼불을 목도(目睹)하는 장면이 『혼불』의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무겁게 감은 청암부인의 왼쪽 눈귀에 찐득한 눈물이 배어났다. 그것은 댓진 같은 진액(津液)이었다. 차마 흘러내리지 못한 채 눈 언저리에 엉기어 있기만 하는 그 눈물은, 무슨 응어리 같기도 하였다. 그날 밤, 인월댁은 종가의 지붕 위로 훌렁 떠오르는 푸른 불덩어리를 보았다. [...] 청암부인의 혼(魂)불이었다. [...] 당골네의 잠든 꿈길을 지나 청암부인의 푸른 혼불은 하늘의 아득한 저 너머 들녘 쪽으로 날아간다. [...] 무심코 마당으로 내려서던 그네에게 가슴속이 시릴 만큼 투명한 빛으로 쏟아지는 청암부인의 마지막 넋에, 효원은 아찔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할머님. 그네는 무망간에 큰방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부인이 누워 있는 큰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번져 나오고 있었다. 순간 효원은, 이미 넋이 빠져 나가 버린 저 방안에서 아직도 저렇게 불빛이 번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도 사무쳐 왔다. 저기 저 방안에 남아 있는 불빛은, 다만 등잔의 불빛이 아니라, 이제 막 육신을 벗고 허공으로 떠오른 부인의 혼불 그림자가, 저다지도 눈물겹게 어려 있는 것이려니 싶어지는 것이었다. (혼불 3:103-106)

ⓒ 2018 NCISS

『혼불』에서의 상례는 청암부인이 이승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면서 시작된다. 임종의 순간 감도는 긴장감과 밀려오는 슬픔에도 청암부인의 절명을 확인하는 의례적 절차가 『혼불』의 제3권에서 담담하게 기술된다.

후읍. 그 순간 청암부인은 깊은 숨을 들이쉰다. [...] 그네의 메마른 몸 속으로 한번 빨리어 들어간 숨은 다시 새어 나오지 않았다. 율천댁이 황급히 몸을 기울여 청암부인의 숨소리를 들어본다. 아무런 기척이 없다. 옆에 앉은 효원이 백지에 싼 햇솜 한 조각을 청암부인의 인중 위에 송구스러운 기색으로 얹어 놓는다. [...] 효원은, 새어 나오는 흐느낌을 누르지 못한다. 방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솜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깃털보다 가벼워 스러질 것 같은 햇솜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부인은 숨을 거둔 것이다. 아직도, 내쉬지 않은 숨이 몸 속에 살아 있을 것이언만, 그네는 아무런 말 한 마디 따로이 남기지 않고 눈을 감았다. (혼불 3:117)

인월댁이 지붕 위에 올라가 '청암부인'을 외치며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른다는 '초혼(招魂)'을 한다.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의식은 망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간곡한 마음이 담겨있다. 인월댁의 초혼 의식이 『혼불』의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인월댁은 청암부인의 머리맡에 흰 적삼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속적삼이다. 청암부인이 임종하기 조금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힐 때 벗긴 옷이다. [...] 인월댁은 부인의 흰 적삼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선 인월댁은 북쪽 하늘을 향하여 섰다. [...] 이윽고 그네는 청암부인의 적삼을 활짝 펼쳐 들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적삼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 허리를 잡아 허공으로 크게 반원을 그리며 천천히 휘둘렀다. [...] 인월댁은 크고 긴 목소리로 청암부인의 혼백을 부른다. 저 깊은 속의 골짜기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이다. "청아암 부이인 보오옥(復)." 인월댁이 목메이게 고복(皐復)하여 혼을 부르는 소리는 바람이 실어가 먼 곳으로 아득하게 흩어졌다. 돌아오라, 혼백이여. 인월댁은 두 번, 세 번, 청암부인의 혼백을 불렀다. (혼불 3:122-123)

상례의 한 절차로서의 습렴(襲殮)은 크게 세 가지 의식,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습(襲)과 고인의 운명 후 다음날 시신을 옷과 홑이불에 싸서 베로 묶는 소렴(小殮)과 소렴 다음날 시신을 입관하는 대렴(大殮)으로 나뉜다.

습렴의 절차에서 망자에게 마지막 음식이 제공된다. 망자의 입에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넣는 의식이 행해진다. 『혼불』의 제3권에서는 청암부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습의 과정과 반함(飯含)의 과정이 여타의 민속학 해설보다 정확하고 생생하게 형상화된다.

시신을 모신 방에서 동종(同宗) 부인들과 둘러앉아 습(襲)을 하던 인월댁은, 흠실댁이 조심스럽게 펼치는 녹원삼(綠圓衫)의 휘황한 자락을 바라본다. [...] 원삼을 반듯하게 펴 놓은 흠실댁은, 초석 위에

ⓒ 2018 NCISS

누운 망인의 두 발에 먼저 버선을 신긴다. [...] 밑부분만 약간 붙여 치마나 다름없이 길게 터진 속곳과 겹바지를, 제일 위에 입는 단속곳의 허리말에 한꺼번에 박아 만든 바지를 조심조심 입힌 뒤에 허리띠를 묶으며 흠실댁이 말했다. 치마는 청상(靑裳)을 먼저 입히는데, 흰색 안감을 받친 푸른 비단 다섯 폭 치마이다. 그리고는 그 위에, 꼭두서니빛 다홍 치마를 공손히 입힌다. [...] 같은 종류의 옷은 입힐 순서대로 미리 끼워 한 벌처럼 해 놓는다. 솔기가 살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입힌 속적삼 위에, 분홍색 속저고리와 노랑 삼회장 저고리, 그리고 초록색 겉마기를 같이 끼운 저고리 삼작을, 좌우에 앉은 부인들이 지성껏 입힌다. [...] 그러나 이 녹의 홍상 아래, 다리와 무릎과 발목은 삼베 교대(絞帶)로 단단하게 동이어 묶여 있었다. 그리고 두 귀는, 풀솜을 대추씨만하게 뭉쳐서 만든 충이(充耳)로 막아, 바람이 빈 집처럼 시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놓았다. [...] 오직 조용하게 누워 있을 뿐인 청암부인의 양 손에, 붉은 명주 안을 받친 검은 헝겊 악수(幄手)를 씌우고 난 흠실댁과 인월댁은 펼쳐 놓은 원삼을 맞잡아, 둘러앉은 부인들과 함께 망인에게 입힌다. [...] 눈을 감은 망인의 얼굴은, 흰 솜으로 귀를 막고, 반듯하게 빗은 흰 머리에 검은 흑단 댕기를 물려, 귀색(鬼色)을 띠고 있다. 그 머리에 흠실댁은 검은 비단 족두리를 씌운다. 정수리 한가운데 옥판(玉板)을 대고, 옥판의 복판에 주홍 산호, 노란 밀화, 물빛 비취, 붉은 유리, 푸른 구슬 들을 영롱하게 한 줄로 꿰어 세운 족두리 앞쪽과 뒤쪽에는, 진주 같은 광택이 나는 등황색 석웅황(石雄黃)이 두 개, 갸름하게 가로놓여 있다. [...] 성장을 다한 망인의 푸른 시안(屍顔)에, 인월댁은 조그만 분첩을 들어 곱게 바르며 읍곡(泣哭)한다. [...] 부인의 발 아래 앉아 있던 동녘골댁은, 명주에 청암부인 혼서지(婚書紙)를 곱게 배접하여 만든 신을 망인의 발에 신긴다. 이제 신까지 신으셨으니, 참말로 길을 떠나시겠구나. (혼불 3:175-179)

반함은 습을 마치고 소렴을 할 때, 상주가 직접 망자의 입 안에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물에 불린 쌀을 고인의 입속에 떠 넣는 의식을 가리킨다. 첫 번째 숟가락을 넣으면서 “백 석이요”, 두 번째 숟가락을 넣으면서 “천 석이요”, 세 번째 숟가락을 넣으면서 “만 석이요”라고 한다. 이때 쌀은 망자가 저승까지 갈 때 먹을 식량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의식은 고인의 입속을 차마 비어있게 할 수 없는 효심에서 비롯한 절차이지만, 생명의 부활을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혼불』의 제3권에서는 이기채가 어머니 청암부인에게 반함의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율촌댁이 울음을 그치고, 쌀이 담긴 그릇을 받쳐든다. [...] 하얗게 소복한 쌀은 찹쌀을 물에 불리었다가 물기를 뺀 것인데, 이기채는 버드나무로 깎은 수저를 들어 가만히 쌀을 뜬다. 그리고 청암부인의 시구(屍口) 오른쪽에 공손히 넣으며 “백 석이요.” 목이 메어 말한다. 다음에는 왼쪽에 한 수저를 넣었다. “천 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수저를 넣었다. “만 석이요.” [...] 흠실댁은 망인의 얼굴에 덮을 멱모(幎帽)를 두 손에 든다. (혼불 3:180-181)

입관(入棺)은 망자의 시신을 관에 넣는 절차이다. 입관할 때에는 시신과 관의 벽 사이에 있는 공

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麻布) 또는 고인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 중에서 자연 섬유 계통의 옷 등으로 메워 시신이 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혼불』의 제3권에서는 청암부인의 입관 장면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형상화된다.

> *청암부인의 입관(入官)을 할 때. 굄목 두 개를 백지로 싼 등상 위에 관을 올려 놓고, 풀솜으로 관 안을 깨끗하게 한 후에 사람들은 백지를 잘라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펴서 놓았다. 그리고 관의 가장자리로도 백지를 병풍처럼 세워 놓은 뒤, 차조의 짚을 태운 재를 서푼 두께로 고루 깔았다. 그리고는, 방판(傍板)에 기대어 세워 놓았던 백지를 덮어서 재가 보이지 않게 가렸다. 그러더니 그 위에다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자주색 안을 받친 붉은 명주 지요(地褥)를 깔았다. 지요의 머리 쪽에는 자주색 명주 헝겊 베개가 꿰매어져 있었다. 대렴포에 감긴 청암부인의 시신은 얼굴에 검은 멱모를 쓴 채로 묵묵히 누워 있는데, 입관할 사람들은 중목(中木) 세 개를 관 위에 상·중·하로 걸쳐서 놓고, 가로 묶을 베 횡교(橫絞)와 세로 묶을 베 종교(縱絞)를 중목 위에 걸쳐 놓는다. [...] 중목 위에 모신 시신을 횡교·종교로 묶은 뒤에, 관의 좌우에 서서 상·중·하 중목 놓인 곳에 걸쳐진 횡교를 똑같은 힘으로 잡고 들어올릴 때, 다른 사람은 얼른 중목을 빼낸다. 들어 올린 그대로, 지하의 묘혈(墓穴)로 내려가듯이 시신은 관 속으로 내려졌다. [...] 사람들은, 종교·횡교의 매듭을 풀어서 시신 위에 펴 놓고, 낙발을 담은 주머니는 머리 쪽에, 손톱을 담은 주머니는 겉면에 씌어진 방향을 따라 뒤섞이지 않도록 좌우의 손 옆에, 그리고 발톱을 담은 주머니는 양 발 옆에 넣으면서, 관 속의 사유(四隅) 네 모퉁이 빈 곳에 입던 옷과 종이로 보공(補空)을 하여 채우고, 그 위에 홑이불 천금(天衾)을 덮는다. 이제 관 뚜껑 천판(天板)을 덮을 차례이다. [...] 천판을 덮기 직전에 망인의 얼굴을 덮은 검은 멱모만은 잠시 벗겨서, 자손들에게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해 주니. [...] 검은 멱모를 다시 씌운 사람들은, 하늘의 뚜껑인가, 천판을 닫고, 관의 귀퉁이에 투웅 투웅 못을 박는다. [...] 검은 관 뚜껑에 못 박는 소리가 심폐의 한복판으로 깊이 저며들어 효원은 관 위로 고꾸라지며 흐느끼어 곡을 한다. (혼불 3:196-198)*

발인(發靷)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망자(亡者)가 빈소를 떠나 묘지로 향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혼불』의 제3권에서는 청암부인의 시신이 빈소를 떠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 *상여를 메고 장지(葬地)로 떠날 상두꾼들이 머리에 삼베 두건을 쓰고 양쪽에 열한 명씩 줄을 맞추어 서 있는데, 상여 앞의 선소리꾼이 놋쇠 요령을 울린다. [...]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유택(幽宅)으로 떠나는 망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려는 사람들이 상여 뒤쪽에 에워 서 있는데, 굴건(屈巾) 제복(祭服)의 이기채는 오동나무 상장(喪杖)을 짚은 채 창자를 훑어 내는 아픔으로 곡을 한다. 효건(孝巾)을 쓴 위에 굴건을 쓰고, 거친 삼베로 재최복을 입은 그는, 삼대를 발라 낸 피삼을 왼새끼로 동아줄같이 꼰 삼노로 수질(首絰)을 만들어 머리에 두르고 요질(腰絰)을 만들어 허리에 두른 채, 다리에는 삼베 행전을 치고, 흰 무명을 신총에 감은 짚신을 꺼칠하게 신고 있다. 앞으로 쏟아지는 그의 몸을 받치는 것은 오직 한 자루 오동나무 지팡이 삭장이다. 옷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저고리 대수장군(大袖長裙)의 긴 허리 아래로, 좌우에 달린 세 폭의 삼베 자락이 뒤에 드리운 여섯 폭 자락을 데불*

ⓒ 2018 NCISS

고 슬픔을 달래는데, 등을 덮은 부판은 바람에 뒤집히며, 업은 비애(悲哀)를 때린다. 발인제(發靷祭)를 마친 뒤, 사람들은, 이승을 하직하고 저승의 머나먼 길로 영영 가는 청암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마당에 웅긋중긋 서 있는데, 무정한 상두꾼들은 어깨에 올려 멘 상여를 천천히 흔든다. (혼불 3:198-200)

『혼불』의 제3권에서는 청암부인의 시신을 모신 상여가 묘지로 가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흔들리는 상여의 사방에 매달린 색실 매듭 유소(流蘇)와 윗난간에 드리운 수실들이, 망인의 혼백이 흔드는 마지막 손처럼 나부낀다. 흔들리며 머뭇거리던 상여는 드디어 한 발을 앞으로 뗀다. 상여 앞에서 소리를 메기는 선소리꾼이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요령을 흔들고, 상두꾼들은 목소리를 맞추어 구슬픈 후렴을 부르면서 대문 쪽으로 움직였다. [...] 상여를 사방으로 에워 두른 아랫난간에는 목단꽃 무늬와 연꽃 무늬, 그리고 구름 무늬 들이 단청을 입어 화사하다. 그리고 윗난간 네 귀에는 봉수(鳳首)가 부리에 고리를 물고 우뚝 솟아 무궁한 창천(蒼天)을 쏘아보는데, 그 아래 운각판(雲刻板)에는 오색 구름이 영롱하다. 본디 상여가 앞뒤가 있을 리 없으나, 나가는 방향이 뒤바뀌지 않도록 앞쪽에 표시하여 붙인 용두판(龍頭板)의 황룡은 등에다 삼천갑자 동방삭(東方朔)을 조그맣게 태우고 있다. [...] 상여는 동방삭의 얼굴이 바라보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봉수에 감아서 드리운 휘장은 외흑내백(外黑內白) 펄럭이고, 색색가지 각색의 색중대(色中帶)는 흰색과 초록, 노랑, 붉은 띠를 날리는데, 봉수마다 걸린 매듭 유소에는 작은 종이 매달려 은은하고 맑은 소리로 운다. 상여 네 기둥에 청·홍 갑사 등롱을 달아 저승의 밤길에 불을 비추라 하고, 둥그런 상여 지붕 정수리에는 연꽃 봉오리를 단 위에, 앙장이 천정(天井)처럼 펼쳐 드리워져 있다. [...] 매안의 도선산 아래 종산으로 떠나가는 청암부인의 상여에는, 황금 빛으로 네 누깔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은 윗도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는 창을 세운 방상시[方相氏]가 앞을 섰다. [...] 방상시 뒤에 따르는 곡비(哭婢) 두 사람이 서럽게 목을 놓아 하는 곡이, 얼어붙어 투명한 겨울 하늘에 사무치는데, 상두꾼들의 상여 소리는 명정(銘旌)·공포(功布)를 흥건하게 적시며 솟을대문을 빠져 나가 물결을 이루면서 고샅으로 내려간다. 청암부인의 죽음을 슬퍼하여, 살아 생전의 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만사(輓詞), [...] 그것은 참으로 휘황하고 긴 강물처럼 출렁이며 넘실거리며 대문을 벗어나 중뜸을 지나 아랫몰로 흘러내려 갔다. 붉은 비단, 노랑 공단, 흰 베폭 들은 불고 있는 바람에 날리어 길게 나부끼면서 하늘을 뒤덮었다. 상두꾼들의 상여 소리는, 뒤에 남아 배웅하는 산 사람들이나, 마을의 지붕들과 나뭇가지까지도 한 물결에 띄워서 멀리멀리 데리고 갔다. (혼불 3:201-204)

『혼불』의 제3권에서는 습, 소렴, 대렴을 마친 다음 날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인 성복(成服)과 성복의 종류와 망자와의 관계에 따른 성복의 기간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술된다.

이제 소렴을 마치고 대렴(大殮)을 한 뒤에, 입관(入棺)까지 하면, 이기채는 거친 베옷에 오동나무 지

팡이를 보고 성복(成服)할 것이다. 그때도, 청암부인을 위해서는 모상(母喪)이나 재최(齋衰) 삼 년을 입겠지만,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를 간 사람이나 여자로서 남의 문중으로 시집을 간 사람은, 그 생가 부모나 친정 부모를 위하여 입는 복을 한 등급씩 낮추어 입는 법이라, 생모 이울댁을 위해서는,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 일 년만을 입을 것이다. [...]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극추생마포(極麤生麻布)로 베옷을 지어, 가위질 한 그대로 아랫단을 너실너실 꿰매지 않은 옷 참최(斬衰)의 상복을 삼 년간 입는다. [...] 어머니의 죽음에는 차등추생포(次等麤生布)로 옷을 지어 아랫단을 꿰매어 입는 상복, 재최 삼 년을 입는다. 그 다음 복은 장기(杖朞)로서, 지팡이를 짚고 일 년간 재최를 입는 것인데,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는 죽고 조부가 생존해 있을 때, 조모를 위하여 입는 복이다. 다음은 부장기(不杖朞)이다. 상복은 입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일년 동안 입는 것으로,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그리고 맏아들 아닌 뭇아들의 죽음에 입는다. 만일 맏아들을 잃었을 때는 그 복이 다르다. 대공복(大功服)은 대공친(大功親)인 종형제와 종자매들을 위해서 입는 상복으로, 굵은 베로 지어 아홉 달 동안 입고, 소공복(小功服)은 소공친인 종조부(從祖父), 종조모(從祖母),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 형제들을 위해서 다섯 달 동안 입는다. 끝으로 시마(緦麻)는, 종증조부, 종증조모, 종조(從祖)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뭇 현손(玄孫)들을 위하여 석 달 동안 입는 것이다. 그래서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를 일러 오복(五服)이라 하고, 장기, 부장기는 상복을 입되 지팡이를 짚는가 안 짚는가를 구분하는 일이다. 물론 지팡이를 짚는 상의 슬픔이 더 무겁다. 다른 상복은 모두 복식과 기간이 하나인데, 재최만은 관계에 따라 삼년(三年), 장기(杖朞), 부장기(不杖朞), 오월(五月), 삼월(三月)의 다섯 종류가 있는 셈이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관계의 사람들이 오복의 경우를 헤아려 슬픔을 표하고 복을 입지만, 요사(夭死)한 사람을 위해서는 순서에서 한 등급을 낮추어 입고,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부장기를 입으며, 서자(庶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위해서도 삼년복을 입지 못한다. 또, 첩도 남편의 장자나 뭇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하여 애통히 여기고 복을 입는다. 부모상에 대나무와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 것은, 그 나무의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혼불 3:191-193)

『혼불』의 청암부인은 한 평생을 홀로 살면서도 문중의 대들보 역할을 한다. 그녀의 죽음은 율촌댁과 효원의 고부간의 갈등도, 문안 마을과 거멍굴의 차이도 초월하여 모든 이들을 결속한다(김정자 2003, 186 참고)[24]. 『혼불』는 청암부인의 죽음과 상례에 많은 비중을 두고 묘사한다.

5. 나가는 말

최명희의 미완성 작품 『혼불』은 혹평과 극찬이란 양극화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양극화된 판단이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것은 바로 최명희가 『혼불』에서 박물지의 형식으로 재현한 "방대한 민속자료"(김동근 2003, 86)이다[25].

『혼불』은 특히 텍스트성과 관련하여 서사적 응집성(凝集性, coherence)과 응결성(凝結性, cohesion)이 단순하고 느슨하여 서사문학으로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는 혹

ⓒ 2018 NCISS

평을 받는다(이정숙 1997 참고)[26]. 이는 박물지적 민속자료에 대한 담론이 “작품 내적인 융화를 이루기보다는 풍속사의 한 대목을 날 것 그대로 옮겨놓은 듯 풍속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김경원 1997, 416) 있으며, 그 결과 “풍속이 등장인물의 생활을 통해 묘사되지 않아 작품 안에 녹아들지 못하고 생경한 느낌을”(김경원 1997, 416) 주기 때문이다[27]. 『혼불』의 방대한 박물지적 문화정보가 서사의 흐름을 방해하여 “읽어내기의 어려움”(양영희 2002, 357)과 “서사 가능성의 희석화와 이로 인한 이야기 지체와 일탈”(양영희 2002, 357)을 초래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28].

한편 『혼불』은 “대하예술소설”(박영순 1999, 311)[29]로서 “방대한 민속자료의 저장고”(김동근 2003, 86)[25], “민속학의 보고”(서정섭 2004, 139), “모국어의 보고”(서정섭 2004, 139) 등과 같은 극찬을 받는다[30].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원동력은 한국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작가 최명희의 무한한 애정일 것이다. 작가 자신이 ‘한국적인 것’에 얼마나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1996년 『리브로』 겨울호에 게재한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 *그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발걸음은 항상 절실하고도 재미있었다. 방대하고 정밀한 이 작업에 필요한 자료는 일차적으로는 내가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들에 대한 나의 기억에 있었지만 이것을 확인하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문헌과 현장과 전문가와 옛 어른들을 찾아다녀야 했던 것이다. 우선 가깝게는 선영(先塋)을 모신 세거지(世居地) 남원의 고향과 외갓집과 일가친척으로부터 멀게는 중국의 연변과 심양과 목단강에 이르기까지 헤매고 다니면서 나는 도취되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변하고 사라져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도 많았으나 마치 이삭처럼 떨어져 남모르게 빛나는 자료를 만났을 때는 감격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갈 때면 항상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느낌이 들곤 했다. 기록이든 물건이든 손때 묻은 자료들은 세월의 혼을 담은 채 살아 있는 ‘존재’로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냈다.*

최명희는 한국 전통 문화 유산에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혼불』에서 ‘한국적인 것’을 섬세한 관찰력과 필력으로 기술했다. 그 결과 『혼불』은 특히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수많은 전통적인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독자들에게 박물지를 방불케 하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것에 주목한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꿈과 감성과 이야기를 중시하는 드림 소사이어티의 세기이자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무대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그것은 ‘민족문화의 세계화’이다. 이때 물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고유한 민족문화의 터전 위에서 보

ⓒ 2018 NCISS

편적 가치가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고유한 민족의 것이 가장 보편적인 세계인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최명희의 『혼불』 이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원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최명희의 『혼불』 에서 재현된 수많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민속·문화 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먼저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린다. 최명희의 『혼불』 에서 기술된 유·무형의 민속·문화 요소들에 관한 활자텍스트를 시청각의 디지털 영상매체로 전환하여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디지털 영상매체가 "인간의 시각욕구 충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감각기관들도 동원하여 다각적이고 공감적인 교류를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매체"(정영근 2004, 20)이기 때문이다[3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겠다.

첫째, 『혼불』 에서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다.

둘째, 추출된 원천 텍스트는 한국의 고유한 민속·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셋째, 『혼불』 에서 재현된 유·무형의 한국 전통 민속·문화 요소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세월의 흐름에 묻혀 희미해지거나 거의 잊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재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혼불』 을 원천 텍스트로 개발될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은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2018 NCISS

References

[1]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William Morrow: New York, (1980).

[2] Hyeong Min Kim, Strategic Plan of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n: 21th Century Culture Forum of Korean People, Tell Korea and Korean, Yeowon Media: Seoul, (2017), pp. 246-266.

[3] Sang Bum Chin and Hyeong Min Kim, Theoretical Review of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Intercultural Education Utilizing Digital Image Media and Game Contents,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014), Vol. 27, No. 1, pp. 9-17.

[4] Hyeong Min Kim and Zae-Ho Li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Utilizing the Korean Commercial Movie Wandeugi: An Application Plan of Digital Image Media, in: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2017), Vol.4, No. 2, pp. 9-31.

[5] Rolf Jensen, The Dream Society: How the Coming Shift from Information to Imagination Will Transform Your Business, McGraw-Hill: New York, (1999).

[6] Chang-hyun Kim, Concept of Storytelling and Educational Value of Classical Nar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in: The Institute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3), Vol. 29, pp. 5-32.

[7] Mi-young Jang, A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Prototype Contents by Honbul, in: Honbul Memorial Association & Choi Myung-Hee Literary House, Thousand-Faces 1, Taehaksa: Seoul, (2011), pp. 417-441.

[8] Eun Mi Go, Storytelling and Cultural Contents in Honbul, in: Honbul Memorial Association & Choi Myung-Hee Literary House, Thousand-Faces 1, Taehaksa: Seoul, (2011), pp. 443-464.

[9] Soon Bong Park and Kwang In Song,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Tourists to Cultural Contents Facility. Focusing on Honbul literature gallery in Namwo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2011), Vol. 25, No. 6, pp. 97-113.

[10] Gok Myeong Hwang, A Study on the Narrative Form in 'Hon-bul', i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1999), Vol. 12, pp. 143-167.

[11] Yol Kyu Kim, Eco-critical Reading of 'Hon-bul', i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1999), Vol. 12, pp. 5-26.

[12]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Translated by Monika B. Vizedom and Gabrielle L. Caffee. Introduction by Solon T. Kimbal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0).

[13]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1974).

[14] Chul Soo Chang, The Rites of Passage and their Policies, in: ASIAN COMPARATIVE FOLKLORE, (1993), Vol. 7, No. 1, pp. 51-61.

[15] Man-Tae Kim, The Changes to the Foundation of Annual Cyclic Rites and Their Modern Modifications, in: Hae-sug Seo, History and Changes of Annual Cyclic Rites, Minsokwon: Seoul, (2010), pp. 302-335.

[16] Ji-Hun Yu and Myung-Sook Han, Analysis of The Rite of Passage and Costume in Novel, HON-BUL, in:

ⓒ 2018 NCIS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97), Vol. 5, No. 2, pp. 169-180.

[17] Il Gu Jang, Dynamic Reciprocities between Authority and Cultural Discursive Features in Honbul (Spiritual Light), in: Honbul Memorial Association & Choi Myung-Hee Literary House, Thousand-Faces 1, Taehaksa: Seoul, (2011), pp. 11-43.

[18] 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

[19] Hyang Man Lee, Birth Rites and Life Consciousness, in: Studies on Life and Culture, (2013), Vol. 29, pp. 127-154.

[20] Young-Ha Joo, The transfiguration and formation of the childbirth ritual between year of 1940 and 1990, in: The Korean Cultural Studies, (2003), Vol. 7, pp. 201-232.

[21] Hae-Kyung Chung, Nariya Woo and Mi-Hye Kim,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ood in the Novel 『Hon-bool』-Focused on "rites of passage" Foods-,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2010), Vol. 25, No. 4, pp. 416-427.

[22] Shi-dug Kim, The State and Challenges of Traditional Mourning Ritual in Present Korean Society, in: Korean studies, (2010), Vol. 17, pp. 435-462.

[23] Dae Soo Park, Comparative study of modem and traditional funeral rites of korea, in: Korean Thought and Culture, (2014), Vol. 73, pp. 133-162.

[24] Jeong-Ja Kim, Myoung-Hee Choi's HONBOOL reviewed through the Boudoir culture in Chosŏn, in: Thesises on Korean literature, (2003), Vol. 33, pp. 165-193.

[25] Dong Geun Kim, The Semiosis and Textuality in Honbul, i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2003), Vol. 20, pp. 81-102.

[26] Jung Sook Lee, Oracle Action of Avenging the Deed in 『Honbul』 under the aspect of aesthetics of reception, in: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1997), Vol. 6, pp. 401-424.

[27] Gyeong-Won Kim, Task Burning with Longing for the Root. 『Honbul』 by Myung-Hee Choi, in: Silcheon-Munhak, (1997), Vol. 5, 410-419.

[28] Young-hee Yang, Conflicting Aspects of Textuality in Honbul,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2002), Vol. 49, pp. 341-359.

[29] Yung Son Park, The Discourse on Korean Culture Identity in <Spiritfire>, in: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1999), No. 11, pp. 311-328.

[30] Jeong Seob Seo, A study on narration structures and linguistic strategies in Honbul, in: The Journal of Modern Literary Theory, (2004), Vol. 21, pp. 139-163.

[31] Young-Kun Tschong, Image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Moonumsa: Yongin, (2004).

ⓒ 2018 NCISS